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은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사용하는 백신은 A/H1N1, A/N3N2, B형의 3가지 주가 포함되며 다가오는 절기에 유행을 일으킬 것으로 예측되는 새로운 바이러스주들과 항원적으로 일치되는 것들로 매년 갱신된다. 백신주와 유행주가 잘 일치할 경우 50~80%에 달하는 인플루엔자 예방효과가 있다.

■ 인플루엔자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 경우는?

- 65세 이상 노인
- 만성 질환자 (나이에 관계없이 만성 심폐질환, 당뇨병, 만성콩팥병, 암, 만성 간질환이 있는 환자, 아스피린을 항상 복용하는 6개월에서 18세 사이의 어린이)
- 만성 질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인과 환자 가족
- 50~64세 성인
- 생후 6~23개월의 영유아
- 사회복지시설 등의 집단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중인 사람
- 임신부, 면역저하 환자, 닭·오리농장 및 관련업계 종사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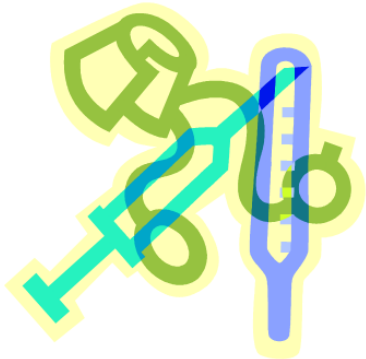


■ 언제, 얼마나 자주 맞아야 하나?

매년마다 유행 이전에 1회 접종해야 가장 효과적이다. (가능하면 인플루엔자 유행 2주 전까지) 이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 국내에서는 대개 9~11월 중순경에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좋다. 소아에서 첫 접종 시에는 1개월 간격으로 2회 맞고 그 다음 해부터는 1회만 접종한다.

■ 인플루엔자 백신의 부작용은?

접종부위가 아프거나 빨갱게 부어오르는 증상이 가장 흔하다. 그 외 발열, 오한, 쇠약감 및 근육통 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증상은 대개 일시적이며, 1~2정도 지나면 좋아진다. 드물게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백신 성분 중 일부, 특히 계란 단백질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 또는 백신 성분(예, 계란)에 대해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사람은 백신을 맞기 전에 반드시 의사에게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열이 나거나 접종 당시 급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백신 접종을 피해야 한다.



* 본 내용은 한림대학교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승순 교수가 제작하였습니다 *